한산모시주거건축의 기초자료 구축과 체험을 위한 건축제안

A Suggestion on the Architectural Experience and Building Base Data for Hansan Mosi(fine ramie) Housing

Author 김상태 Kim, Sang-Tae / 정회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weaving of Mosi(fine ramie) in the Hansan region wa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11. Unlike other fabric, as the Mosi is very sensitive towards humidity it needs different conditions for its workspace. The Hansan region is near the sea with many mountains around where it is easy for the Mosi to grow and is an appropriate place to weave Mosi. Recently the manpower for weaving of Mosi in the Hansan area is decreasing with the decrease of workspace drastically. After the investigation of workspace for the weaving of Mosi in the Hansan area, most of the places were done in individual houses and it could be classified in 1. Mosi storeroom, 2. Shed(Gwang che), 3. Dugout hut, 4. Under the toenmaru. The depth of the dugout hut and under the toenmaru is around 80~60cm which is similar with the depth of the prehistoric dugout hut houses. The towns for weaving of Hansan Mosi are formed mostly in the Seochungun district, but the Hoamri Hansan-myeon and Gayangri Masan-myeon has the most traditional workspaces and they are still forming and maintaining the traditional town composition. However the numbers are too small and maintaining the traditional town is getting more difficult, so a plan for the maintenance should be made to continue to keep it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eywords 주거, 수혈, 작업공간, 한산모시, 고방, 광, 움집, 툇마루
Housing, a Pit Dwelling, Workspace, Hansan Mosi(fine ramie), Storeroom, Shed, Dugout hut, Toenmaru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1년 한산모시짜기의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세계적 위상과 가치가 상승되었음을 의미한다. 2009년 중국의 운금, 2010년 일본의 유키즈 무기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우리나라의 한산모시짜기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비단짜기가 등재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모시짜기가 등재되어 회소적인 가치가 인정되었다. 서천군은 한산모시짜기의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자 한산모시전시관 리모델링, 모시전수관운영, 한산모시축제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추진하였다.

세계유산은 그 문화적 가치의 보존을 위한 진정성 회복과 다음 세대에 전승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여 등재를 승인한다. 그러나 세계유산 한산모시의 현재 상황은 전반적인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모시관련 생산자 및 작업자의 노령화, 국산 모시의 생

산성과 가격문제로 인한 중국산 모시 사용, 전시관 운영의 문제점, 모시 작업공간의 변화와 소멸이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세계유산 등재 유지를 위한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위해, 현지조사를 통한 모시 작업 공간의 현황조사와 유형분석,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한산모시 주거건축의 기초자료의 구축과 원형보존 및 체험을 위한 건축제안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한산모시 관련 생산자와 제작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 전화조사에 의한 건축공간 유무조사, 2차 건축공간이 현존하는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조사하였다.

현지답사는 한산모시주거 조사를 위한 조사카드를 만들어 한산모시 작업(베틀사용)공간, 전통건축 공간 유무, 구조체·벽체·지붕 재료 종류, 평면 유형,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카드에 의한 주거유형 분류와 분류에 따른 대표 주택을 선정하여 실측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서천군에 위치한 한산모시관련 주거와 한산모시관을 건축법위로 하여, 조선왕조실록 등 모시관련 고문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자료 등을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국내사례로는 직물관련 무형유산(삼베)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서천 한산모시의 개념과 현황

2.1. 한산모시의 개념

(1) 모시의 정의

저마와 대마는 줄기 껍질을 벗겨서 가늘게 쪼갠 실로 만든 인피섬유 직물이다. 그중 저마는 그 본질이 깨끗하고 섬세하며, 고아한 아름다움이 있어 예로부터 왕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옷감이다. 저마는 우리말로 모시라고 불리었으며, 한자로는 저(紵, 苧)라 하고 모시배의 의미로 저포(紵布, 苧布)라고도 한다.¹⁾

한산모시는 서천군 한산면 주위에서 주로 나는 모시로 다른 지역보다 섬세하고 단아하며, 우아하여 모시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한산모시의 제사 및 제직 과정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또한 한산세모시짜기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2) 모시의 역사와 한산모시

모시라는 명칭은 송나라의 손목이 지은 백과서인 『계림유사(鷄林類事)』에서 처음 보이는데 ‘저왈모(紵曰毛)’라 하고 아래에 시(紵)를 더하여 ‘모시’라고 했으며, 또한 포(布)는 배(背)라고 하고 ‘저포왈모시배(紵布曰毛紵背)’로 표기하였다.²⁾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헌안왕 4년(860)의 기록을 보면, “한 부유한 사람이 의복으로 사치를 할 수 있는데도 항상 삼베[麻]와 모시[紵]로 만족하였다”³⁾고 기록되어 있어 삼국시대부터 이미 모시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문왕조(869)에는 “가을 7월 왕자 소판(蘇判) 김운 등을 당나라에 보내 사신하고 아울러 …대화어아금 10필, 소화어아금 10필, 조하금 20필, 사십승백첩포 40필, 삼십승저삼단(三十升紵衫段) 40필…을 바쳤다”⁴⁾라는 기사가 있어, 신라의 모시가

중국에 보내졌으며, 모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산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려시대에는 중국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 1123)』에 “여자의 옷은 흰모시 노랑치마인데 위로는 왕가의 친척과 귀한 집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의 처첩에 이르기까지 한 모양이어서 구별이 없다”는 기록이 있으며, “왕이 평상시에는 검은 건에 흰모시포[白紵布]를 입어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고려는 모시와 마를 심어 사람들이 배옷을 많이 입는다”고 기술⁵⁾하였다. 이는 모시가 고려시대 상하의 구분 없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옷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해 조선시대의 모시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세종실록」 세종 1년에 ‘황세저포(黃細苧布)30필 백세저포(白細苧布)30필, 사저교직(絲苧交織) 10필’을 진상하였다는 기록과 같은 해 8월 ‘백세저포(白細苧布)50필, 사저겸직포(絲苧兼織布)6) 5필’을 중국 황제에게 진상했다는 기록⁷⁾이 있어 모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직물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저포(細苧布)에 대한 기록⁸⁾을 살펴보면, 세종대에 113회, 세조대에 58회, 성종 대 36회 등 조선초기사가 많았으며, 당시 사저겸직포의 제작 등을 볼 때 조선 초기에 모시제작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조선에서 유통되던 직물을 8년 동안 수집하고 직물을 종류별로 분류·해석하여 발간한 책인 『조선향염직물명칭유휘(1915)』를 보면, 한산, 즉 서천은 한산모시를 생산하던 지역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던 곳이며, 우리나라 모시를 대표하던 곳이었으나 이 지역에서 언제부터 모시를 재배하고 제작하였는지 정확하게 전래되지 않으며, 다만 삼국시대 한 노인이 건지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모시풀을 발견하고 재배하기 시작하여 모시짜기의 시초가 되었다고 구전되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다.⁹⁾

18~19세기에는 한산, 홍산, 서천, 비인, 임천, 보령, 남포, 정산과 함께 저산팔읍(紵産八邑)에 속하는 지역으로 예부터 질 좋은 모시가 생산된 지역이다. 실제 『조선왕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서천군, 한산모시전수관 및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 2012.12, p.7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서천군, op.cit., p.7

3) 『三國史記』三國史記 卷第十一 憲安王 四年條.
‘…一高門子弟 其與人也 不自先而處於下 一家富於財 可以修衣服 而常以麻紵自喜 一有勢榮 而未嘗以其勢加人 臣所見如此…’

4) 『三國史記』卷11 新羅本記 景文王 9年條.
‘遣王子蘇判金胤等入唐謝恩 … 大花魚牙錦一十四, 小花魚牙錦一十四, 朝霞錦二十四, 四十升白紵布四十四, 三十升紵衫段四十四 …’

5) 『宣和新修高麗圖經卷』 第20 婦人條 婦人·‘… 女子之服, 白紵黃裳, 上自公族貴家, 下及民庶妻妾, 一槩無辨’, 第7 冠服條 王服·‘或聞平居燕息之時, 則阜巾, 白紵袍, 與民庶無別也’, 第23 雜俗2條 土產 ‘其國, 自種紵麻, 人多衣布, 絕品者, 謂之紵, 潔白如玉, 而窘邊幅, 王與貴臣, 皆衣之’

6) 건사(비단)와 저사(모시)를 섞어 짠 직물을 사저교직포 또는 사저겸직포라고 명명했음을 알 수 있다.

7)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3卷 元年(1419年) 1月 22日 (丁卯) ‘帝所進金飾鞍子四面、…黃細苧布三十四、白細苧布三十四、黑細麻布一百四、絲麻交織布一十四、絲苧交織一十四…’, 동년 8月 25日(丁酉) ‘…謹備白細苧布五十四、黑細麻布一百五十四、絲麻兼織布五四、絲苧兼織布五四…’.

8) 세저포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태조(1회), 태종(3), 세종(113), 문종(8), 단종(12), 세조(58), 예종(3), 성종(36), 중종(1), 선조(1), 인조(1)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서천군, op.cit., p.16 참조 및 재인용

조실록』예종 1년 6월 29일 공조 판서 양성지(梁誠之)가 공납과 관련된 상소를 올리는데, 임천·한산은 생저(生苧)를 바친다는 기록¹⁰⁾을 통해서도 한산이 모시의 대표적인 생산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 충청도의 공납물 중 모시가 포함되어 있어 조선초기부터 이미 이 지역이 모시 생산의 주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산은 모시장이 형성되어 한산모시를 사기 위하여 상인들이 몰려드는 등 우리나라에서 모시의 대표 지역으로 상징성을 갖는다. 지금은 행정구역 상 한산과 서천이 통합되어 서천으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한산, 홍산, 서천, 비인, 임천, 보령, 남포, 정산의 저산팔읍과 같이 한산과 서천은 다른 생산지를 뜻하며, 현재 서천군 내에서도 한산지역이 세모시로 유명하던 곳이라고 전하고 있다.¹¹⁾

2.2.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무형유산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 또한 무형유산에 포함된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는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기술 등이며, 무형유산의 특징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해야 하며,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를 하고,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한다. 또한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과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해야 한다.¹²⁾

우리나라의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현재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강강술래(2009년), 남사당(2009년), 영산재(2009년), 제주 칠머리당영등굿(2009년), 처용무(2009년), 가곡(2010년), 대목장(2010년), 매사냥(2010년, 다국적유산), 줄타기(2011년), 택견(2011년), 한산모시짜기(2011년), 아리랑(2012년)으로 총 15건이 있다.

한산모시짜기는 2011년 11월 28일 우리역사와 함께 발전하였던 모시짜기의 중요성과 그 기술의 과학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에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모시에 대한 계승·육성에 따른 체계적인 보존대책이 필요하며, 고증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맞는 국제적 규모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3. 서천 한산모시의 현황

서천 한산모시짜기의 현황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화 및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1) 조사방법

1차 조사 대상 : 한산모시조합 550명 전화 인터뷰, 노인 일자리사업 286명 현장 방문 인터뷰, 노인회관, 마을회관 방문 인터뷰

2차 조사 대상 : 1차 조사 대상자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선별 각 마을별 중요 대상자 방문 조사

3차 조사 대상 : 한산모시조합과 노인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 각 마을별 방문 조사 시 6명 추가

(2) 조사대상

조사 대상 : 총 614 명

- 작고·통화 거부 및 불가 등 : 162명

- 한산모시조합 : 388 명

- 노인일자리사업 : 220 명(조합 중복 66 명 제외)

- 그 외 기타 : 6 명

한산모시짜기는 개략적으로 모시풀 재배(태모시), 실방직(굿모시), 모시짜기(필모시)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조사 대상 614명의 작업현황에 대한 지역적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우리는 태모시 생산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마산면, 화양면, 한산면은 굿모시와 필모시 제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한산면은 지현리와 동산리를 중심으로 한산모시가 중점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서천군 내 한산모시짜기 작업 공정별 지역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모시 110가구 생산, 굿모시 405가구 제직, 필모시 69가구가 제직하고 있어 모시짜기 작업 중 가장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굿모시의 제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서천군 내 한산모시짜기 작업 공정별 중심지역 분포 현황

2.4. 전통직물관련 마을의 사례

현재 모시짜기마을은 서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타 다른 지역은 그 명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

10) 『朝鮮王朝實錄』 睿宗實錄6卷 元年(1469年) 6月 29日(辛巳), ‘…臣竊惟, 貢物詳定, …全州·南原貢厚紙, 林川·韓山貢生苧, 安東等處貢席子, 江界等處貢人蔘, 濟州貢良馬…’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서천군, op.cit., p.17 참조 및 재인용

12)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총회

정이다. 따라서 모시짜기와 그 방법과 재질이 유사한 삼베짜기마을의 국내현황을 통해 모시관련 생산 공간의 차이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현재 전통삼베마을은 안동의 금소마을, 무주의 삼베마을, 남해 삼베마을, 홍성 삼베마을, 곡성의 돌실나이 등이 있다.

이들 마을은 국가 혹은 지방무형문화재로 전승이 되고 있다. 특히 안동 금소마을은 한산 모시마을과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대표적인 삼베마을로 유명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동포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 진 삼베를 말한다. 삼베는 모시와 다르게 대마줄기로 만들기 때문에 결이 굵고 제작하기가 용이하다.

삼베의 제작 공간 또한 모시와 다르게 일반 작업공간에서 제작이 용이하다. <그림 2>와 같이 정침의 건넌방이나, 혹은 광채에 베틀을 놓고 작업을 한다. 한

<그림 2> 안동 금소마을의 삼베작업공간

산모시마을과의 차이를 들면, 모시는 습기가 작업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습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거나, 습한 환경을 조성하여 작업을 하지만, 삼베의 경우 일반적인 내부 공간 어디서나 작업이 용이하다. 곡성의 경우 안동과 같이 개별 가구에서 작업공간을 조성하여 베틀작업을 하고 있지만, 무주와 홍성의 경우 마을회관 혹은 폐교 등을 이용하여 단체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삼베마을 역시 한산모시마을과 마찬가지로 전통 농촌주거에서의 작업 공간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현대식 농촌주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서천 한산모시주거의 현황과 유형

3.1. 모시의 작업환경

모시를 짜는 작업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건조한 환경에서는 날실이 쉽게 끊어지게 되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모시를 짜는 작업은 주로 한산모시관에서 이루어지거나 개인 주택에서 작업하는 사례가 많다. 개인 주택의 작업공간은 안채와 연결된 골방과 같이 모시 짜는 방을 두거나, 본채와 별개로 광을 두고 짜는 경우와 반지하 구조를 가진 광 혹은 움을 두고 짜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 반지하의 부엌 등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보통 보다 높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지하 형태나 집안에서 습도가 높은 쪽의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습도 높은 작업 공간도 습도 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아 외기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에 비닐을 치고 내부에 가습기를 설치하여 습도

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시 짜기에 있어서 습도유지를 위한 건축적인 공간에 대한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3.2. 한산모시 주거의 개념

한산모시의 모시생산을 위한 작업은 주로 모시밭과 저장시설에서 이루어졌으며, 굵모시의 경우는 물 혹은 침을 이용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내공간이 주된 작업공간이었다. 굵모시와 필모시의 중간 단계인 모시날기¹³⁾와 모시매기¹⁴⁾ 과정은 8m 이상의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에 마당이나 부엌의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하다. 모시짜기는 모시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습기에 약한 모시를 섬세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짜기 위해 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a) 전통베틀의 모습

b) 개량베틀 시연모습

<그림 3>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방언옥의 전통베틀과 한산모시전수관의 베틀작업 모습

이상과 같이, 한산모시를 생산하는 과정과 실을 만드는 과정, 실을 베틀에 걸어 모시 천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주로 주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기의 한산모시 생산을 위한 작업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농촌주거를 한산모시주거라 정의한다.

3.3. 서천 한산모시 주거건축의 현황

서천 한산모시 주거건축의 현황을 위한 조사는 1차 조사결과 전통 작업공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총 37채를 조사 및 실측하여, 한산모시제작 작업환경 특성을 가진 전통건축 공간을 찾아 모시 짜기에 적합한 환경을 위한 건축적인 특성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4>는 현재 옛 작업공간이 남아있다고 응답한 작업자를 조사한 통계표로 유선전화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것이다. 기산면의 산정리, 마산면의 가양리, 시초면의 신곡리, 중천면의 장구리, 한산면의 동산리, 호암리가 옛 작업공간이 남아있다고 응답한 수가 6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13) 굵모시 작업 후 모시는 '조슬대'라는 틀에 매어 한필의 모시를 짤 만큼의 실을 감는다.

14) 모시날기가 끝난 모시를 모시짜기에 앞서 날실을 부드럽고 보푸라기가 생기지 않도록 콩풀을 먹이면서 모시베틀에 얹을 '도투마리'라는 틀에 감는 과정이다.

<그림 4> 작업공간유무

<표 1>은 1차 조사에 의한 유선조사로 면과 리 소재지 별 작업 공간 유형별 질문에 따른 서천군의 면소재지 별 베틀사용 공간 조사 현황표이다.

<표 1> 서천 면소재지별 베틀사용 공간 현황

면	리	방	광	움 (반지하)	부엌	총합	비고
기 산 면	가공리				1	1	
	막동리	1				1	
	산정리	5	1			6	
	신산리	1		1		2	-움(헛간으로 사용)
	월기리	3				3	
마 산 면	황사리	1				1	
	가양리	5	1			6	-문간채 모시작업 1개소 -별채 두어 작업 1개소
	마명리	1				1	
	시선리		1			1	
	이사리	1	2			3	
마 서 면	산내리	2				2	
	옥북리		1			1	
	한성리	1				1	-방(겹집)
문 산 면	구동리	1				1	
	금북리	1				1	
	수암리	1				1	
서 천 읍	동산리	2				2	
	두왕리	1	1			2	
	둔덕리		1			1	
시 조 면	선동리	1	1			2	-방(옛날 황토집)
	선암리	3	1			4	
	신곡리	5	1			6	
	초현리	1	1		1	3	
	태성리	1				1	-방(30년됨-비닐덮고)
종 천 면	장구리	5	2			7	-광(1개소는 20년전 재건축) -양옥집 5개소
	지석리	2				2	-오래된 한옥집 2개소
	화산리	2				2	-겹집 형태 1
한 산 면	구동리	1				1	
	단상리	2				2	
	동산리	7		1		8	
	마량리		1			1	
	원산리	3		1		4	-움(10년전)
	종지리	1				1	
	지현리	2		2		4	
	호암리		5	1		6	-움(30년전만든 반지하)
화 양 면	고마리	2	1			3	-방(2개소 모두 개량)
	기북리	1				1	
	남성리	2				2	
	대하리	4				4	
	보현리	1				1	
	완포리	1				1	
	장상리	2				2	
총 계	죽산리	1		1		2	-'굴은 부분적으로 보이게 됨'이라 표현
		77	21	7	2	107	

작업 공간의 유형별 조사 결과 총 107가구가 베틀사용 공간에 대하여 응답하였으며, 고방, 골방이나 사랑방, 별채의 모시방을 만드는 경우, 별도의 광이나 창고, 문간채 등의 공간을 만드는 경우, 툇마루 밑에 움을 파 사용한 경우, 별도의 움집을 만들어 사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서천군의 면소재지 별 작업공간의 유형별 현황은 <그림 5>와 같이 확인되었다.

<그림 5> 작업공간 유형별 현황

조사결과 기산면과 문산면, 화양면은 모시방의 사용이 많았다. 마산면과 마서면, 서천읍, 시조면, 종천면의 경우 주로 모시방을 사용하였으나, 별채에 광을 만들어 사용한 경우도 나타났으며, 한산면의 경우 안채와 별채의 모시방과 함께 광이나 움집의 활용도 나타나 다양한 공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4. 서천 한산모시 주거건축의 유형

서천 한산모시 작업공간에 따른 주거건축의 유형은 4가지로 나타났으며, 그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채의 고방을 이용한 경우, 별채의 공간을 이용한 경우, 움집을 만들어 이용한 경우, 툇마루 아래 움을 조성하여 이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안채의 고방을 이용한 경우

안채에 고방을 두어 모시작업 공간을 만드는 경우는 조사대상 전체 107가구 중 77가구로, 7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천군의 각 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모시짜기 공간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안채에 덧달린 방(선동리 김정덕씨)

<그림 7> 안채의 고방 사용사례(고방, 모시방)

(2) 별채의 공간을 이용한 경우

별채에 공간을 두어 모시작업 공간을 만드는 경우는 조사대상 전체 107가구 중 21가구로, 2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안채에 고방을 두어 작업공간을 만드는 경우의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한산면 호암리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림 8> 호암리 정삼희덕 별채 모시공간

<그림 9> 광채 등 별채를 이용한 경우(참고)

(3) 움을 만들어 이용한 경우

집 안에 모시방을 만들어 사용한 이외에, 마당이나 문간채 등에 움을 만들어 베틀을 놓아 작업하였던 사례가 있다. 움을 지어 모시작업 공간을 만드는 경우는 조사대상 전체 107가구 중 7가구로, 6.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로 한산면 지현리에서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지현리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문정옥 명예보유자의 자택에 움집이 남아 있다.

<그림 10> 한산면 지현리 문정옥(명예 문화재) 덕 움집과 베틀

<그림 11> 움집을 지어 작업한 경우(지하)

(4) 툇마루 아래 움을 조성하여 이용한 경우

툇마루 아래에 움을 파 그 밑에 베틀을 놓고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현장조사 중 여러 분들의 증언이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한산면 호암리와 마산면 이사리에서 툇마루

<그림 12> 이사리 220번지 (툇마루아래에 움을 파 작업을 한 흔적)

아래에 움을 파 작업을 하였던 흔적이 2곳 남아 있었다.

4. 서천 한산모시주거건축의 특성

4.1. 전통베틀의 규모와 공간

한산모시의 작업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베틀의 규모와 작업 반경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방언옥의 전통베틀 시연모습을 바탕으로 한 작업공간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전통베틀의 규모는 베틀길이 1650mm, 폭 800mm, 높이 1200mm로 일반적인 전통주거공간에서 충분히 작업 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한산모시 작업관련자와의 인터뷰에서 베틀이 조립이 가능하기

A:1650mm, B:1200mm, C:800mm

<그림 13> 전통베틀의 규모

때문에 작업공간(습기, 저장시설)이 가능한 곳에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특히 베틀의 폭이 800mm이기 때문에 툇마루 아래에 움을 파 작업도 가능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실제로 현지조사에서 툇마루 밑을 파 움을 만들어 사용한 사례를 실측한 결과, 툇마루의 폭이 1200mm 전후로 나타난 점은 베틀 폭 이외에 400m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 모시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놓거나 수장하였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베틀사용 공간 Unit을 길이 2400mm, 폭 1200mm, 높이 1200mm로 산정한다.

다만 툇마루의 폭이 800mm 이상이 되어야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초기와 중기 보다는 조선 후기에 와서 툇마루 아래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 이유는 조선 후기에 좌식생활이 보편화 되어, 툇마루가 집 전체에 확대되었으며, 주간 길이와 폭 또한 넓게 되었기 때문이다.

4.2. 한산모시주거건축의 복원사례

한산모시짜기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동시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방언옥)로 지정되어 보존 및 전승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1호(나상덕)로 지정하여 한산모시전수관에서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14>는 현재 서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산모시 시연을 위한 전통건축의 모습이다. 전통 기와지붕의 1가집으로 누마루를 두어 상류주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마루 밑에는 베틀작업의 시연을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으며 반지하의 움집형태를 재현하였다.

<그림 14> 한산모시 시연관 모습과 반지하의 콘크리트 베틀작업공간

그러나 현재 재현공간은 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재현은 누마루와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누마루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방연옥의 전통베틀<그림 3>이 놓여 있는데, 행사나 공적인 공개 시에만 시연을 하고 있다. 현재 평상시 시연은 누마루와 맞닿은 방에서 개량베틀로 작업하고 있으며, 습기 공급을 위해 창문을 비닐로 막고 가습기를 틀며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조사를 결과, 대부분의 서천지역의 한산모시 작업은 상류주택이 아닌 민가형식의 이영(초가)지붕이었으며, 현재는 이영지붕은 함석이나 슬레이트로 개량한 상태였다. 습기 공급 또한 작업 시 지속적인 습한 상태의 유지를 위해, 작업공간에 새벽이슬을 먹인 축축한 짚(풀)을 깔았으며, 움집이나 툇마루 아래에 움을 파 작업한 것 또한 지면아래의 습기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산모시관에서서의 시연 공간 및 전수 공간은 문화재 전승으로서 전통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세계유산의 지속적 등재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통계승에도 진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산모시주거의 조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작업공간의 구현과 관련 주거지의 건축물의 재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4.3. 한산모시주거마을의 건축조사

서천의 한산모시주 거 마을조사는 1차 조사 대상자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선별 각 마을별 중요 대상자 방문하여 건축이력과 작업공간 등을 면담과 실측 및 사진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모시관련 베틀이 있으며, 또한 작업공간(필모시)이 있는 총 37가구의 건축물(2채 모시밭)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건축조사를

[illegible]

<그림 15> 이사리 220번지의 건축조사
Check List

위해 주택명 및 주소, 전통건축구조(지붕, 구조, 기둥, 벽체, 마루, 기단, 초석), 모시제작 공간, 스케치 및 실측, 특이사항, 사진 등을 조사의 기본 틀로 하여 Check List를 작성하였다.<그림 15>

<표 2> 한산모시주거마을 건축조사 결과표

일련 번호	건축명 (소유주)	위치	전통건축 구조혼적	모시제작 외부공간	모시제작 내부공간	실측 유무	비고
1-1	정삼희	호암리	●	메기 (마루밑 움)	광	×	집 수명 30년
1-2	이양림	호암리	×	×	광	×	현재×
1-3	노영숙	호암리	●	×	광	×	현재 회관작업
1-4	최금병	호암리	●	(마루밑 움)	광	×	현재×
1-5	송형재	호암리	●	×	광	×	광 확장작업
1-6	구기순	호암리	●	×	광	×	초가집
1-7	문정옥	지현리	●	×	움	●	국가문화재
1-8	신예호	가양리	●	×	고방	×	1948년, 겹집
1-9	고본자	지현리	●	×	움	●	모시집건축
2-1	양영자	가양리	●	×	부엌고방	×	부속채 사용
2-2	김영숙	가양리	●	메기	문칸방	●	1962년 상량
2-3	이영자	마령리	●	날기,메기	광	×	집 수명 40~50년
2-4	문순화	이사리	●	×	고방	×	부재중
2-5	무명	이사리	●	(마루밑 움)	×	●	폐가(100년정도)
2-6	김형희	구동리	●	×	고방	×	집 수명 100년
2-7	임순재	초현리	●	×	부엌, 고방	×	전통야욕보존양호
2-8	김정덕	선동리	●	(마루밑 움)	고방	×	윗마루막음
3-1	조옥자	가양리	●	메기	광	×	집 수명 30~40년
3-2	허정숙	가양리	●	메기	광	×	과거 창고 작업
3-3	나성자	단상리	●	×	고방(움)	×	(5년전 움메움)
3-4	박영자	죽산리	●	×	문칸방	×	22년 작업
3-5	조순자	화촌리	●	×	광	×	현재양옥부엌작업
3-6	김춘자	죽산리	●	날기,메기	고방	×	양옥에 추가
3-7	유부월	대하리	●	날기,메기	고방(문칸방)	×	현재 양옥
4-1	신영우	울리	×	모시밭	×	×	400평
4-2	노승재	울리	×	모시밭	×	×	800~900평
4-3	임윤례	지석리	●	날기,메기	고방(광)	×	과거 광에서 작업
4-4	지순희	지석리	●	날기,메기	고방	×	100년, 빛채모시방
4-5	구복현	화산리	●	날기,메기 (마루밑 움)	고방	●	겹집, 빛마루움
4-6	김금순	장구리	×	×	고방	●	92년 양옥신축
4-7	김순자	장구리	×	×	고방	●	35년된 양옥
4-8	김명자	장구리	×	×	고방	●	30년된 양옥
4-9	김영숙	장구리	×	×	고방	×	97년 양옥신축
4-10	구재월	산정리	●	×	광	×	초가집(지붕개량)
4-11	김동현	산정리	●	×	고방	×	집 수명 60년
4-12	이정복	신곡리	●	날기,메기	고방	×	집 수명 70년 이상
4-13	고영규	초현리	●	메기	광(고방)	×	대문칸 광이용

총 35가구(모시밭 조사제외)의 건축물 조사를 결과 6가구는 현대식 양옥으로 신축하였으며, 전통건축 중 대부분 초가집의 구조로 조사되었다. 현재 초가지붕은 슬레이트와 합석으로 교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모시작업 내부공간의 다른 직물관련 마을과 같이 고방의 사용이 많았는데, 3가구에서 움의 사용 사례를 발견하였다. 현지 모시종사자에게 면담결과 불과 20~30년에는 툇마루에 움을 만들어 사용한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으며, 현재는 고방 혹은 광에 베틀작업공간을 만들어 창을 비리로 막고 가슴기를 틀며 작업한다고 하였다. 이는 점차 현대화되는 모시작업환경을 반영한 결과이며, 전통적 작업방식인 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판단된다.

4.4. 주거유형에 따른 건축특성

(1) 안채의 고방을 이용한 경우

한산 모시관련 건축물조사를 통해, 작업공간을 안채의 고방을 이용한 경우는 19가구로, 조사대상 35가구에서 모시작업 공간 총 43개 경우¹⁵⁾ 중 4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공간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중 6가구는 다른 유형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인데, 별채의 사용은 3가구, 움을 사용한 가구는 1가구, 툇마루 밑을 파서 사용한 경우는 2가구였다. 특히 예전에 고방을 사용하다 현재 별채에서 작업한 경우는 1가구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현재 모시작업이 안채의 고방사용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장구리의 경우, 조사대상 4가구 모두 고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든 가구가 한마을에 언덕을 중심으로 두 위치하고 있어 공간유형의 집단적 공유를 볼 수 있었다. 조사결과 주택 내 모시방의 종류에는 안채의 고방, 사랑채의 방과 별채를 두어 모시방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방을 모시 짜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본 건물에 덧붙여 작업공간을 증축하는 경우도 보였다.<그림 6 참조>

목조의 전통식 주택 뿐 아니라 벽돌조 등의 양옥에서도 모시작업을 위한 방을 따로 계획하여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의 경우에는 대개 습도조절이 어려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계절 이외에는 외기를 차단하고 내부에서 가습기 등으로 습도 조절을 해야 한다. 이 방식은 전통 직물관련 작업공간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화산리 구복현씨택 장구리 김순자씨택 장구리 김명자씨택
<그림 16> 모시작업공간을 고방으로 사용한 경우 실측도면

<그림 16>은 고방에서 모시작업을 한 사례인데, 구복현씨택의 경우 전통가옥을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옥 평면형태가 강원도 산간지역이나 해안가에서 보이고 있는 겹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툇마루 아래에 움을 파 사용하던 흔적과 모시방의 위치가 주로 북동쪽의 배산면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이는 습기공급이 주된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시작업의 결과로 보이는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2) 별채의 공간을 이용한 경우

작업공간을 별채의 방이나 창고를 사용한 경우는 16가

15) 총 조사대상 35가구 중 증축된 작업공간을 사용한 가구는 8곳으로, 작업 공간의 가지 수는 43곳으로 나타났다.

구로 37%의 비율이며, 안채 고방의 경우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다른 유형의 공간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총 5경우로 툇마루 밑을 파서 이용한 경우가 2곳, 고방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3곳으로 나타났다. 호암리의 경우 조사대상 6가구 모두가 별채를 사용하였는데, 구릉의 경사지에 위치하여 장구리의 고방사용과 같이 동일한 공간유형의 사용을 볼 수 있다.

안채의 고방이나 움 형태가 아닌 일반 광채에서도 모시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며, 문간채 등에서도 작업을 하였는데, 현재는 창고로 쓰이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곳에서 작업 시 습도 조절을 위하여 바닥에 풀을 깔고 작업하기도 하였다 한다. 본체는 다시 양옥집으로 신축하더라도 예전에 작업하던 광채가 남아있는 곳이 일부 확인되었다. 모시작업공간을 별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일반적인 전통 직물작업공간이라 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그림 17> 모시작업공간을 별채의 공간으로 사용한 경우 실측도면(가양리 김영숙씨택)

(3) 움을 만들어 이용한 경우

움을 따로 만들어 사용한 사례는 총 3가구로 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움을 만들 경우는 고방이나 별채에서 작업공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움의 사용이 힘들 경우 움을 메우고 안채 고방을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움집은 대체로 지면을 주변 지표면보다 낮게 조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완벽한 형태를 갖춘 문정옥 보유자 택의 움집은 모시짜기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는 움집의 규모와 구조, 단면의 깊이, 지붕의 구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재 현존하는 움집 모두가 한산면 현리에서 확인된다.<그림 10 참조>

<그림 18> 한산면 동산리 나상덕씨(충남무형문화재1호) 움집 실측도면 (평면, 단면)- 연구자 실측

(4) 툇마루 아래 움을 조성하여 이용한 경우

툇마루 아래에 움을 파서 모시 작업공간을 사용한 사례는 총 5경우로 12%를 차지하였는데, 현재 4가구는 움

을 매워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고방이나 광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였다. 마산면 이사리 220번지 폐가의 경우 <그림 12> 다른 사례와 달리 뒷마루에 움을 판 흔적이 자세히 남아 있어 모시짜기 공간의 매우 특수한 공간사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여름에 주로 모시짜기 공간으로 사용한 뒷마루의 움은 겨울에는 감자 등 구황작물의 저장고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모시작업공간을 위해 움을 만들거나 뒷마루 아래에 움을 파서 사용한 사례는 땅 속의 습한 환경을 이용한 경우로, 서천지역에서만 보이는 매우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한산모시주거건축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5. 한산모시주거건축의 원형보존과 체험을 위한 제안

5.1. 한산모시주거건축 기본형1 - 고방형

고방형은 시초면 선동리 김정덕씨택과 마산면 가양리 신예호씨택, 마산면 마명리 이영자씨택의 사례, 그리고 건축조사 실측도면을 분석하여 계획하였다.

고방형의 특징은 강원도와 경상도 산간지방, 그리고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주로 보이는 겹집의 형태이다. 현재 상기의 조사대상 건축에서 겹집의 평면이 보여지고 있으며, 작업공간은 고방으로 주로 북동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대상 주거지 배면에 산이 위치하고 있어, 충분한 습기의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작업공간의 규모는 베틀작업과 수장 공간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2400mm×1800mm로 계획하였으며, 입면은 기존 한산모시주거의 지붕재료인 이엉으로 만든 초가지붕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19> 모시작업공간을 뒷마루 아래 움으로 사용한 경우 실측도면(이사리 220번지)

<그림 20> 한산모시주거건축 고방형의 기본개념 투상도

<그림 21> 한산모시주거건축 고방형의 기본평면 규모

5.2. 한산모시주거건축 기본형2 - 별채형

별채형 주거는 광채형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주로 본체의 별채를 구성하여 사용하는데, 마산면 가양리 양영자씨택과 김영숙씨택, 마산면 이사리 문순화씨택, 한산면 호암리 정삼희씨택의 사례를 분석하여 계획하였다.

고방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별채를 구성하거나, 혹은 문간채가 있는 집의 규모가 큰 주거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대상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주로 한산면 호암리에서 많이 나타나며, 고방형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풀을 깔아 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작업하였다.

별채형의 작업공간 규모 또한 고방형과 마찬가지로 방의 폭을 1800mm로 계획하였으며, 지붕 또한 분석 사례와 고방형 주거와 같이 초가지붕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22> 한산모시주거건축 별채형의 기본개념 투상도

<그림 23> 한산모시주거건축 별채형의 기본평면 규모

5.3. 한산모시주거건축 기본형3 - 움집형

움집형 주거는 본 연구조사에서 가장 특수한 결과로 선사시대 주거의 형태와 비슷한 규모의 움집이 발견되었으며, 한산면 지현리 문정옥씨택(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명예보유자)과 한산면 지현리 고분자씨택의 사례를 분석하여 계획하였다. 대상자의 인터뷰 결과 1960~70년대 까지도 다수의 움집을 만들어 모시를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움의 깊이는 600mm~800mm이다.

움집의 규모는 2700mm×2400mm으로 계획하였는데, 문정옥씨택의 움집 규모인 3700mm×2800mm 보다 소규모로 하였다. 이는 대상자 인터뷰에서 현재의 움집보다 소규모일 가능성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24> 한산모시주거건축 움집형의 기본개념 투상도

<그림 25> 한산모시주거건축 움집형의 기본평면 규모

5.4. 한산모시주거건축 기본형4 - 툇마루 움형

뒷마루 움형 또한 움집형과 함께 본 연구조사에서의 독특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뒷마루 아래에 움을 파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뒷마루 아래에 움을 팔 경우 기단의 기초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산면 이사리 220번지 주택(소유주 미상)과 한산면 호암리 최금병씨댁(현재 사라짐)의 사례에서 뒷마루 아래를 파 움을 만들어 그 안에서 배틀작업을 하였음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사리 220번지는 움을 되메우기를 하였지만, 움의 흔적이 남아 있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배틀의 폭이 800mm 이므로 퇴의 폭은 그 이상이었으며, 보통 1200mm ~ 1500 mm로 조사되었다. 뒷마루형의 퇴의 규모는 폭 1200mm, 길이를 두칸(5100mm)으로 하여 작업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26> 한산모시주거건축
뒷마루 유형의 기본개념 투상도

<그림 27> 한산모시주거 틈마루
움형의 기본평면 규모

6. 결론

서천 한산모시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산모시의 작업환경은 모시의 특성상 습기에 가장 민감하다. 한산모시 관련 주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에서 습기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전통적 방법으로는 새벽이슬이 남아있는 풀을 깔아 사용하거나 움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주로 우기인 여름에 작업을 많이 하였다. 현재는 창을 비닐로 덮고, 가습기를 이용하여 4계절 내내 작업을 하고 있다.

2. 조사결과 한산모시주거의 유형은 4가지로 나타났으며, 그 유형은 안채의 고방을 이용한 경우, 별채의 공간을 이용한 경우, 움집을 만들어 이용한 경우, 툇마루 아래 움을 조성하여 이용한 경우이다.

3. 한산모시주거건축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베
틀 사용 공간(베틀규모, 작업 반경 및 작업물품 수장)을
실측을 통해 길이 2400mm, 폭 1200mm, 높이 1200mm의
공간규모를 산정하였으며, 한산모시주거건축 기본형의
계획 시 기본 공간 Unit으로 적용하였으며, 텃마루 아래
움 깊이와 마루의 너비의 최소 치수 기준이 되었다.

4. 현재 한산모시작업은 한산모시관과 마을회관, 그리

고 개인주택에서 이루어진다. 한산모시관에는 전통 한산모시 시연관이 있어 일반시민들에게 전통 한산모시의 작업방법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연관의 건축은 조사결과 전통 한산모시주거와 다르게 기와지붕의 상류주택 형태이며 작업공간도 콘크리트의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세계유산의 지속적 등재와 무형문화재의 가치 전승에 문제제기가 되며, 방문자들에게 한산모시 공간에 대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롭게 한산모시주거를 재현하여 진정성이 있는 한산모시의 전통적 작업 시연과 함께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5. 조사대상 614명 중, 베타소유와 함께 작업공간이 유지되고 있는 35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틀을 기준으로 한 Check List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전통건축구조를 유지한 채 지붕만을 슬레이트와 합석으로 교체 사용 중이며, 모시작업을 주로 고방에서 하고 있음을 알았다. 다만, 모시작업 시 습기 제공을 위해 가습기를 틀고 있었으며, 창문을 비닐로 막아 습기의 유출을 막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자연적 습기유지를 기초로 한 전통공간은 점차 사라져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20~30년전 까지 일반적 방식이었던 움집조성과 뒹마루아래에 움을 파 사용한 전통방식은 단지 5가구만이 남아 있었으며, 실제로 사용한 가구는 1가구에 그쳐 전통방식과 전통공간의 현상유지가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6. 한산모시주거건축의 공간특성은 고방을 이용한 경우 한반도 북부지방과 산간지방, 그리고 해안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평면 형태인 겹집형(田자형)이 많았으며, 고방의 위치는 뒷산에 가깝게 배치하여 습도조절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별채의 공간(37%)을 이용한 경우의 비율은 고방의 경우(44%)와 비슷했으며,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택에서 조사되었다. 움을 만들어 이용한 경우는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개체 수는 적었으나 현대 이전에 많이 사용한 방법으로, 움의 깊이는 일반적인 움집의 깊이인 600 ~ 800mm의 깊이였다. 툇마루 아래 움을 조성하여 이용한 경우 또한 매우 중요한 사례로 툇마루 하부 기단 아래에 움을 만들어 작업을 하였는데, 움집과 같이 주로 현대 이전에 많이 사용한 방법으로 여름철 우기에는 배틀작업을 하였고 겨울에는 구황작물을 넣어 보관하는 저장장소로 사용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7. 장구리의 경우 조사대상 4가구 모두가 고방을 이용하였으며, 호암리의 경우 또한 조사대상 6가구 모두가 별채를 사용하였다. 또한 움집을 만들어 사용한 경우는 주로 지현리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산모시 작업공간유형이 대체적으로 지역에 따라 작업공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산면 호암리와 지현리는 한산모시 생산의 중심지로, 한산모시를 생산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작업공간을 별채(움집)에 두

어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의 구분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전문화된 가내수공 공간의 특성을 보였다.

8.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4가지 형태의 한산모시주거건축 원형보존과 체험을 위한 기본 주거형태는 고방형 주거, 별채형 주거, 움집형 주거, 툇마루 움형 주거이다. 한산모시관 혹은 주변의 별도 공간에 4가지 형태의 재현 주거를 조성하여 한산모시짜기 전수자들에게 작업공간 및 생활공간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방문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한산모시작업과 건축공간의 시연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참고문헌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서천군, 한산모시전수관 및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 2012.12
2. 三國志, 弁辰條
3. 宣和新修高麗圖經卷
4. 조선왕조실록
5.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6. 조선항염직물명칭유취
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heritage>
8. 서천군청, <http://www.seocheon.go.kr>
9. 사이버 한산모시관, <http://hansanmosi.kr>

[논문접수 : 2013. 10. 31]

[1차 심사 : 2013. 11. 22]

[2차 심사 : 2013. 12. 05]

[게재확정 : 2013. 12. 13]